



‘전세계 11억병 판매 브랜드, 블루넨의 스파클링 와인’

블루넨 블루 에디션

Blue Nun Sparkling Blue Edition

지역	독일 > 라인헤센		
포도품종	트레비아노 아이렌		
알코올	11%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8~10℃		
테이스팅 노트	블루넨 블루 에디션은 가볍고 프레쉬한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으로 기분 좋게 오래 지속되는 버블과 복숭아, 망고, 열대과일의 아로마와 과실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디저트/과일		



제품설명



블루넨 블루 에디션은 최상의 빈야드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선별하여 만들어지며, 저온 발효를 거쳐 효모와 6개월 동안 숙성이 이루어진다. 식전주 및 가벼운 식사와 함께 하기에 적합하며, 단독으로 즐겨도 좋은 와인이다.

와이너리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넨은 자셀 존에 의해 1921년 설립되었다. 1995년 랑구스 사와 합병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블루넨은 더욱 모던하고 상큼한 와인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와인이 되었다. 블루넨은 문자 그대로 '푸른 옷을 입은 수녀'라는 뜻으로, 오래 전부터 와인은 성스러운 장소인 수도원이나 성당에서만 만들 수 있었으며,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녀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품질의 포도원액과 어울리는 푸른색의 미려한 병모양은 다양한 계층의 와인 애호가들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시켜 왔다. 블루넨의 오랜 역사와 모던한 기풍은 크발리테츠바인에서부터 아이스바인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